

2022 KYS 미술품가격지수

자료제공_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2022 작가별 낙찰총액 상위 3위 KYS 미술품 가격지수>

낙찰총액	작가명	낙찰총액(원)	출품수	낙찰수	낙찰률(%)	호당가격	호당가격
1 위	이우환	25,453,790,000	323	209	64.71	26,689,182	2 위
2 위	박서보	12,344,840,000	219	159	72.60	10,023,074	3 위
3 위	김환기	7,701,260,000	119	63	52.94	40,883,334	1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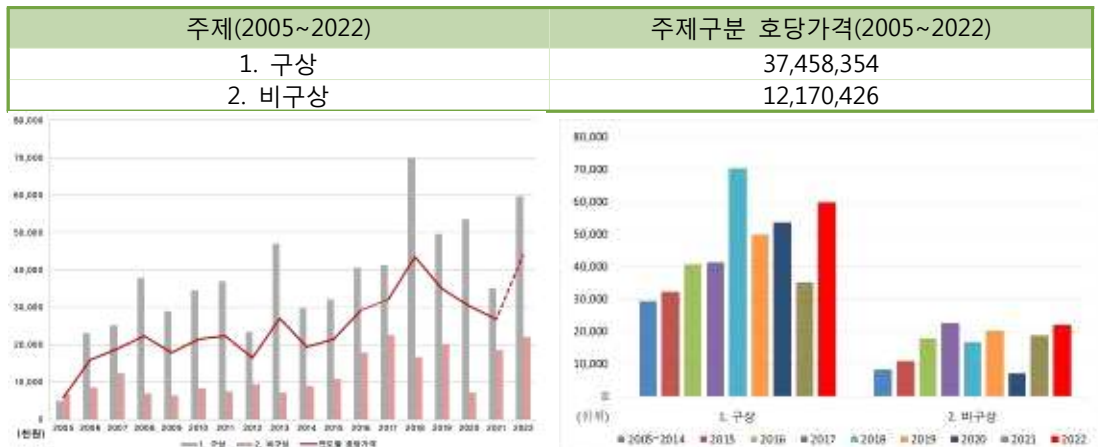
국내 작가 중 낙찰총액 3순위 '이우환-박서보-김환기'에 대한 'KYS미술품가격지수'를 비교해 보니, 캔버스 작품 기준 호당가격 순위는 '김환기-이우환-박서보' 순이었다. 이 중에 호당가격이 가장 높은 김환기의 가격지수를 '100'으로 기준하면, 2위 이우환은 '65.28', 3위 박서보는 '24.52'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위 김환기** 작품은 크게 구상과 비구상 성격의 작품으로 시장 선호도가 달라지는데,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주제별 평균 호당가격은 구상 약3,746만 원과 비구상 약1,217만 원으로 여전히 구상 작품이 높았다. 다만 단색화 열풍 이후의 최근 작품들로 비교한다면 구상과 비구상의 호당가격 차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순위 이우환 작품의 시장 선호도는 시대순에 따른 표현 기법으로 달라지는데, '점→선→바람→조음(다이얼로그 포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점 시리즈 약2200만원, 선 시리즈 약1800만원, 바람 시리즈 약670만원, 조음(&다이얼로그) 시리즈 약380만원' 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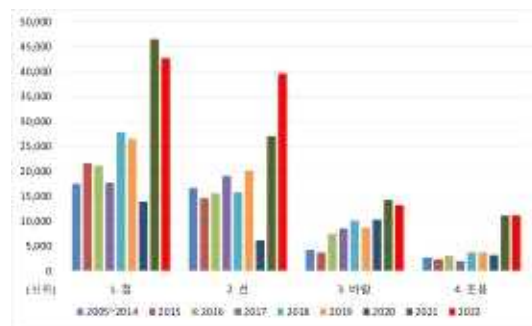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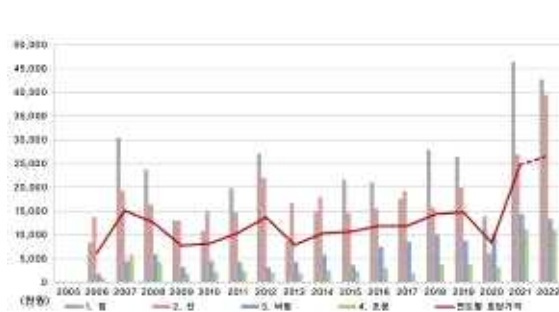
3순위 박서보 작품도 기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묘법(이랑) 시리즈 약310만원, 묘법(빗살무늬) 시리즈 약293만원, 묘법(연필) 시리즈 약45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1위 김환기 / 2022 KYS 미술품가격지수(100) <김환기-호당가격 (2005-2022)>



2위 이우환 / 2022 KYS 미술품가격지수(65.28) <이우환-호당가격 (2005-2022)>

주제(2005~2022)	주제구분 호당가격(2005~2022)
1. 점	22,048,808
2. 선	18,058,459
3. 바람	6,686,477
4. 조음	3,816,531



3위 박서보 / 2022 KYS 미술품가격지수(24.52) <박서보-호당가격 (2005-2022)>

주제(2005~2022)	주제구분 호당가격(2005~2022)
1. 묘법(이랑)	3,112,937
2. 묘법(빛살무늬)	2,928,367
3. 묘법(연필)	4,574,651

